

“아시아 전통문화, ACC 손잡고 디지털로 되살아난다”

‘공적개발원조 10년’ 국제포럼 성과 공유·향후 미래전략 모색 미얀마·라오스·몽골 등과 협력 콘텐츠 창제작·국제공연 추진 “문화중심도시로서 비전 실현”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이끌어 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 10년을 맞아 확장을 모색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19일 ACC 국제회의실에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과 ACC 문화자원관리지원 ODA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제포럼이 열렸다. 국가유산청을 비롯해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문화부 등 국내외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유진룡 전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은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ODA 사업은 국내외 문화정책 흐름과 협력 사례를 반영하며 추진돼 왔다”며 “앞으로는 박물관 전시, 디자인 아카이빙, 콘텐츠 창작 등 ACC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확장된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그간 ODA 사업의 핵심과제로 여겨진 대상국가의 전통문화 보존을 넘어, 이를 활용한 관광·창조산업 발전 가능성까지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CC의 ODA 사업은 지난 2015년 ACC 개관과 함께 추진돼 ‘아시아 문화·예술의 허브’라는 정체성을 실현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2018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등과 협력해 디지털 문화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문화유산 보존과 역량 강화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겪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제회의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ACC 문화자원관리지원 ODA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국제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은 문화유산 소실의 경험을 교훈 삼아, 아시아 각국이 자국의 전통문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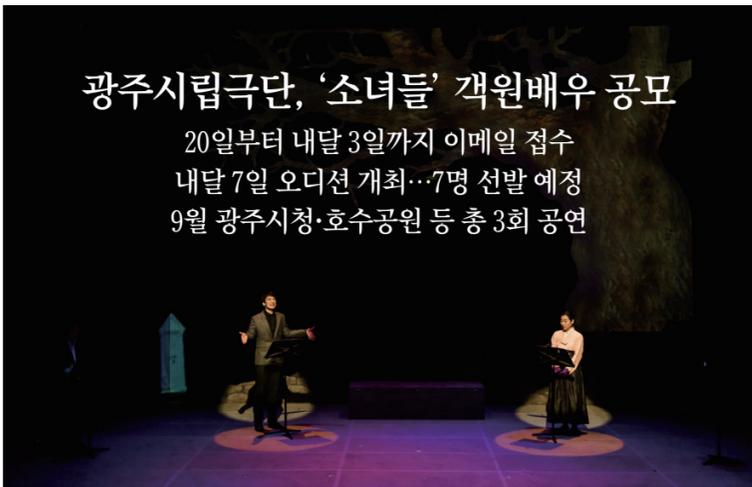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ACC는 10년간 축적된 자료와 정보,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ODA 사업의

범위를 콘텐츠 창제작, 문화상품 개발, 국제공연 기획 등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협력국 외의 국가에도 시스템 표준을 자연스럽게 확산해 아시아 문화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키르기스스탄·라오스·몽골 문화부 관계자들이 직접 자국 내 디지털 문화자원 관리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며 생생한 현장 경험도 공유했다. 또 전문가 세션에서는 국가유산청, 한국환경연구원, KOICA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ACC ODA사업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ACC 관계자는 “이번 국제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ODA 사업의 방향성과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광주시립극단, ‘소녀들’ 객원배우 공모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이메일 접수
내달 7일 오디션 개최...7명 선발 예정
9월 광주시청·호수공원 등 총 3회 공연

광주시립극단은 찾아가는 문화공연 ‘소녀들’에 참여할 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19일 광주예술의전당에 따르면 문화공연 ‘소녀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연기자 7명이다. 접수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며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gjdrama@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다음달 7일 광주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열린다.

필수과목은 △지정연기 △자유연기 △특기 △면접이고 연습 및 공연 일정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모집한다.

합격자는 다음달 9일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http://gjart.gwangju.go.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찾아가는 문화공연 ‘소녀들’은 광주시립극단 제3회 창작희곡공모 수상작으로 광주학생운동을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야외극장과 광주광역시청에서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시민 체험형’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오는 9월6일부터 9월13일까지 신창동 역사문화공원, 광주광역시 시민홀, 북구 양산호수공원 등에서 총 3회에 걸쳐 선보일 계획이다. 박찬 기자

주안미술관 기획전 ‘마음풍경: 心景’

2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김예빈·홍유진 2인 전시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주안미술관은 기획전 ‘마음풍경: 心景’을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예빈, 홍유진 작가가 참여하는 2인전으로 마련됐다.

전시 주제인 ‘마음풍경(心景)’은 ‘마음’과 ‘풍경’의 합성어로, 작품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하나의 풍경처럼 바라보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는 감정이라는 보편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에 두고, 관람객이 자신만의 감정을 되짚어보며 위로와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김예빈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도파

민과 색채를 키워드로 감정의 흐름과 자아 형성을 표현한다. 관계 속에서 요동치는 감정의 파동을 유동적인 색과 레이어로 시각화했다.

홍유진 작가는 인생의 찰나적 순간과 감정의 온도에 집중한다. 젤스톤, 임파스트 기법 등을 활용해 감정의 깊이를 섬세하게 담아내며, 인물 형상은 누구나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감정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당신의 인생은 몇 도입니까?’라는 질문은 관람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전시는 모든 연령층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주안미술관 인스타그램(@juan_artmuseu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광주문화재단, 아트광주25 특별전 ‘라이징 스타전’ 참여작가 공모

내달 16일까지 이메일 접수
전시 부스 제공·홍보 지원 등

광주문화재단은 호남 최대 국제아트페어 ‘2025 광주국제미술전람회’의 특별 프로그램인 ‘라이징 스타전’에 참여할 청년 작가를 다음달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19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라이징 스타전’은 유망한 지역 청년 작가들의 미술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특별전이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아트광주 25’ 현장 내 전시 부스 지원과 함께 도록 게재, 온오프라인 홍보 등이 제공된다.

모집인원은 총 3명이며, 참가자격은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에서 미술 분야를 전공했거나,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로 등록된 19~40세 광주 지역 청년 예술인이다.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도록 자료 제출 등 추후 일정은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작가는 광주문화재단(<http://www.gjcf.or.kr>) 또는 아트광주 홈페이지(<http://artgwangju.co.kr>)에서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

아 작성 후 아트광주25 공식 이메일(artgwngju.official@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트광주25’는 호남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아트페어로 손꼽힌다. 올해는 오는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노회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청년 작가는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재다”며 “‘라이징 스타전’은 이들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미술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유망한 청년 작가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광주대 호심미술관, 전통채색화 ‘한지에 고운 빛’ 전시 개막

내달 2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이후 소요유갤러리서 릴레이 전시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전통채색화 회원들과 서화 이경자 작가의 갤러리 회원들이 참여한 ‘한지에 고운 빛(사진)’ 전시가 19일 호심미술관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문인의 취향을 반영한 책거리, 차분하고 단아한 베이지 톤의 기명절지도, 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십장생도와 노안도 등 우리의 삶과 염원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인다. 수



표현된 민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광주대 호심미술관에서 다음달 2일까지 열린 뒤 소요유갤러리(7월3일~31일)에서 릴레이 전시로 이어진다.

최준호 광주대 호심미술관장은 “조선 민화는 서민의 삶과 정서는 물론 당시 문화의 다양성이 담긴, 독특한 K-예술이다”며 “성인 학습자들이 전시를 통해 수준 높은 민화 작품 창출과 자아성찰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뜻깊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